

이홍재의 세상만사

최종섭과 우제길, 그들의 아내 사랑



논설고문

받는 것은 즐겁다. 공짜로 받으면 더 기쁘다. '공짜를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는 말은 적어도 받는 그 순간에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들 하지만 아니다.

얼마 전 광주시립미술관에 갔다가 책을 세 권이나 공짜로 얻었다. 그 중 하나가 사랑하는 아내를 젊은 나이에 먼저 보내야 했던 화가 렘브란트의 '도록'(圖錄)이다. 서가에 꽂아 놓고 바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미술관을 찾았던 날이 마침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이어서 뜻하지 않게 행재를 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매년 지역 미술계와 한국 미술계에 영향을 끼친 원로 또는 작고 작가를 선정해 초대전을 개최한다. 올해는 1960년대 전후 광주·전남 지역에 추상미술의 도입으로 한국현대미술 운동에 기여한 고(故) 최종섭(1938~1992) 화백 회고전이 열렸다.

최종섭은 광주 출생으로 1957년 광주사범학교를 졸업했다. 강용운·양수아 화백에 이은 광주·전남 지역의 추상미술 제2세대 작가다. 그는 이 지역 추상미술의 토착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30여 년간 '에보끄'(epoque : 新紀元) 그룹을 이끌기도 했다.

1964년에 창립된 광주의 '에보끄'는 1954

년 서울의 '오리진', 1963년 부산의 '혁'(赫)에 이어 생긴 한국에서의 세 번째 비구상 그룹이다. 생각해 보니 '에보끄'란 생소한 명칭과 최종섭이란 이름을 처음 들어 보았던 것이 언젠가였다. 아마 문화부 기자 시절이던 80년대 초였을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1992년 병상(病牀) 유작을 마지막으로 생을 다한 그의 회고전을 찾는 감회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특히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라는 작품 앞에서는 절로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없었다. 최근 전시회를 다녀간 문순태(소설가) 선배가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경건하게 서 있었다고 토로한 것처럼 나 또한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했다.

숨을 멈추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이 작은 정성을 바치노라-나는 지금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리라. 나와 정인숙의 만남은 68년 11월 늦가을의 에보끄 전시장에서다. 처음부터 그는 내 아내가 됐음을 알았다. 그 후 71년 2월 20일 오후 3시 우린 결혼식을 올렸다. 행복한 출발이었다. 나와 그녀는 서로 사랑했고 또 사랑했다. 이제 3형제의 아들들이 엄마를 행복하게 해 줄 것이

다.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1992년 3월 6일 남편 최종섭." 사랑하는 아내를 남겨 두고 떠나야만 하는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해 그는 웨딩암으로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터였다. 그는 마지막 생명이 연소될 때까지 오로지 아내를 위해 그림 100점을 그리기로 약속했다. 병상에서 하루 24시간 진통제를 맞아 가며 작품에 매달렸다. 혼신의 작업이었다. 하지만 끝내 100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5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뜨고 말았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연작 50여 점은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왔다. 그러나 23년 만에 그의 작품 앞에 서면서 어찌 옷깃을 여미지 않을 수 있으랴.

막막해진 가슴으로 전시장을 돌아 나오면서 나는 최종섭과 함께 이 지역 추상미술을 이끌어 온 또 한 명의 화가를 떠올렸다. 70년대 에보끄를 통해 그와 함께 활동했던 '빛의 화가' 우제길(73). 그를 떠올린 것은 그의 '아내 사랑' 또한 참 유별나다 싶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우제길이 파동같은 부인 김차순(61)을 만난 것은 22년 전, 그의 나이 51세, 부인의 나이 39세였을 때다. 서로의 눈에 공작지가 썩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시 부인은 충청도의 한 농장에서 쫓소를 키우고 있었다. 쫓소가 100마리까지 불어났을 때 우제길을 만났다.

부인에게 우 화백은 101번째 소였던 셈이다. 그리고 보니 우 화백의 호(號)가 '우보'(牛步) 아닌가.

이후 부인의 모든 재산은 아낌없이 우제길에게 투자된다. 최종섭이 세상을 떠났던 92년, 그해 31년간의 교단 생활을 정리한 우 화백은 전업작가가 돼 온갖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함께 한 이가 바로 부인이었다.

오로지 '빛'을 위해 헌신한 삶

우 화백이 공작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지고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미술과 패션의 만남'이라는 이름으로 대형 패션쇼를 개최했을 당시, 부인이 겪었던 고생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한다.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천들이 내려오면, 수십 벌의 옷들에 작품 이미지가 그려지고 부인은 밤새워 그 수십 벌의 천과 옷들을 다리미질해 새벽 첫 고속버스 편으로 발송하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다. 이후에도 고생 같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그동안 '예술적 삶의 덩어리'들을 통째로 옮기는 네 번의 이사 끝에 광주 율리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든가. 시공을 맡았던 라인건설의 부도. 그러나 부인은 암 수술

을 마친 후 실 틈도 없이 작업복 차림으로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하며 끝내 완공을 해내고. 발이 달도록 관계부처를 찾아 예산을 따오는 것도 오롯이 부인의 몫이었다.

드디어 1998년 두 곳에 밀려둔 작품들과 살림들을 옮겨오는 다섯 번째 커다란 이사. 이어서 2003년 의재로 큰 도로변에 소공원 조성. 건축가 승효상을 수십 번 찾은 끝에 '빛의 이미지'를 제대로 살린 조각 작품 같은 건축물인 '우제길 미술관'을 지난해 완공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부인이 없었으면 이루지 못할 꿈이었다.

게다가 부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16년간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때 부인은 자궁암과 유방암 그리고 무릎 관절 수술 등 큰 수술만 열한 번이나 했다니 그 힘든 세월들을 어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 화백은 회고한다. "김차순은 작가인 나의 삶과 직업에 대한 뒷바라지를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한없이 멀고도 먼 길을 맡아 없이 걷고 또 걸어왔다.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고 헌신적인 봉사과 노력으로 나와 함께했다. 예술보다 더 강한 게 무엇일까? 나는 아내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고 충분한 감동을 했다. 그러하기에 난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달고 산다."



개통 눈앞 KTX 호남선 시설 점검
오는 4월 2일 KTX 호남고속철 개통을 앞두고 12일 오후 광주 송정역에서 관계자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제2 남도학숙, 서울 은평구청 옛 별관에 2017년 개관

서울 북부지역 대학생 대상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 출신 학생의 기숙사인 제2남도학숙이 은평구청 부근에 지어진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제2남도학숙 건립부지로 은평구청 옛 별관을 확정했다.

부지면적 5960㎡ 규모의 은평구청 옛 별관은 현재 창고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구체적인 건축방식을 이달 내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은평구가 신축한 기숙사를 분양받는 방식(양시도 소요 예산 396억원·수용규모 500명) ▲양 시·도가 부지를 매입한 뒤 사학진흥재단이 건축해 기부채납 받는 방식(195억원·650명) ▲양 시·도가 부지를 매입한 뒤 직접 건축하는 방식(466억원·600명) 등 3가지 신축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양 시·도는 이달 안에 최종 신축방식을 확정하고 은평구청과 기숙사 건립과 관련 협약을 맺는다. 이후 오는 5월 1차 추경 때 소요예산을 반영하고 올 하반기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하게 된다.

예산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절반씩 부담하며, 개관 시기는 2017년(2학기)이 유력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은 서울 서남부권 대학 재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만큼 제2남도학숙은 북부권 대학 재학생들이 선호하게 될 것"이라며 "2017년 2학기 개관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KTX 광주송정~용산 요금 4만6800원

용산~여수엑스포 4만7200원

다음달 2일 개통될 KTX 호남선 열차시간표와 요금이 확정됐다. 12일 코레일에 따르면 KTX 호남선 상행선(광주송정→용산) 첫차는 새벽 5시30분, 막차는 밤 10시53분이며 하행선(용산→광주송정) 첫

차는 새벽 5시20분, 막차는 밤 10시15분이다. KTX 호남선이 개통되면 용산~광주송정역간 소요시간은 2시간39분에서 1시간33분으로 줄어든다.

열차 요금은 용산~광주송정역 기준 4만6800원(일반)이다. 용산~여수엑스포역은 4만7200원(일반)이다.

코레일은 오는 13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역별 시간표를 공식 발표한 뒤 열차표 예매와 발매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전라선 상행선(여수엑스포역→용산) 첫차는 새벽 5시5분, 막차는 밤 9시10분이다. 하행선(용산→여수엑스포역) 첫차는 새벽 5시20분, 막차는 밤 9시40분이다. 전라선 상하행선 운행횟수는 모두 20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흑산 홍어 풍어로 가격 폭락...어민 '울상' 소비자 '웃음'

한마리 40만원 이하로 떨어져

'겨울철 별미'로 인기가 높은 신안 흑산 홍어가 풍어다.

최근 20여일 사이에 3000마리 가까이 잡는 대풍어로 가격이 떨어져 소비자는 반색이지만 수입이 떨어지는 어민 표정은 밝지 않다.

12일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에 따르면 6

척의 어선이 지난달 중순 1200마리의 홍어를 위판했다. 이어 또다시 1300마리를 어획하는 풍어를 이루고 있다. 출어 어선은 많게는 500마리 정도 잡는 등 흑산 해역이 홍어풍년이다.

하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어둡다. 8kg 이상 홍어 알컷 한 마리 가격이 40만원 이하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50만원 을 넘던 홍어 값이 폭락한 것이다. 풍어

에다 경기침체 등으로 소비마저 부진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 어민들 마음은 좋지 않다.

흑산 홍어는 낚아 올린 즉시 신선한 회로도 먹지만 석회 먹을 때 코끝을 찌는 특유의 맛을 낸다. '황산 콘드로이틴'이라는 물질이 다량 함유돼 관절염, 기관지 천식에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이성진기자 sslse@

밝은광주안과 의원 의료광고 심의필 제 141205-중-65758호

진료내용

라식 LASIK **라섹 LASEK** **ICL 안내렌즈삽입술** **SMILE Small Incision Lenticule Extraction 수술**

SMILE 수술이란?
라식수술시 만들게 되는 각막절편을 만들지 않고, 2mm의 최소절개를 통해 각막을 제거하는 신개념 수술입니다. 라식수술로 생길 수 있는 안구건조증을 최소화하고 각막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시력교정수술입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 빌딩

운암동 광안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원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